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한수산



토요일 오후, 학교 가까이에 있는 식당에서였다. 옆자리에서 돈가스를 먹고 있던 여고생 가운데 하나가 칼질을 소리 내었다. '와, 완전 개맛이다.' 음식을 놓고 개맛이라니. 맛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이걸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런 소리쯤으로 알아듣고 고개를 돌려보니, 개맛이라고 외친 여학생은 환황하다는 듯 입맛을 다시고 있는 게 아닌가. 요즈음 청소년들 사이에서 개라는 말이 일으키고 있는 이변의 하나다. 이들이 쓰는 은어(隱語) '개맛'을 '개 같은 맛' '못 먹을 맛' 정도로 알아들어서는 안 된다. 그 반대다. 정말 너무 맛있을 때 내치게 되는 탄성의 하나가 '개맛'이기 때문이다. 은어가 만들어지는 원칙에는 기존 어휘를 대치, 첨가, 삭제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저 옛날 군대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공병들이 심심이라는 뜻에서 공병대를 '굴병대'라고 불렀던 것은 대체된 것이고, 이마뺨을 '마뺨'이라고 하는 것은 삭제의 경우가 된다. 그 가운데는 순서를 바꾸는 치환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도 있다. 가짜

함부로 치고 때릴 때 '개 패듯'하거나 '개 잡듯'한다고 한다. 이렇듯 개라는 접사가 붙으면 상황은 나쁜 쪽으로 돌변한다. 그런데 바로 이 개가 놀람게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연 다른 의미로, 그것도 최악에서 지고지신의 최고로 변해 버린 것이다. 개라는 말의 화려한 비상이 아닐 수 없다. 오랜 세월 천덕꾸러기로 구박받으며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는, '개'의 찬란한 부화라고나 할까. 언어는 살아 있는 것이다. 생소소멸을 거듭하며 동시대의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강압으로 통제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는 해도 '개'의 경우는 특이하다. 은어의 어떤 발생 배경과도 다른 기이한 현상을 보여준다. 의식의 전도랄까, 언어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의미의 도치까지 와 닿은 이 언어 파괴의 극단적인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대학가에서 학생들 사이에 쓰이는 은어도 만만치 않다. 다만 그 생소와 소멸의 주기가 한결 빨라져 가고 있다. 소위 일류대학을 두고 '스카이(SKY)'라고 하던 것도 그렇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지칭하

완전 개맛이다

문예 인위적인 강압으로 통제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는 해도 '개'의 경우는 특이하다. 은어의 어떤 발생 배경과도 다른 기이한 현상을 보여준다. 의식의 전도랄까, 언어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의미의 도치까지 와 닿은 이 언어 파괴의 극단적인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대학가에서 학생들 사이에 쓰이는 은어도 만만치 않다. 다만 그 생소와 소멸의 주기가 한결 빨라져 가고 있다. 소위 일류대학을 두고 '스카이(SKY)'라고 하던 것도 그렇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지칭하

던 이 말은 어느새 사라졌다. 다만 여전히 신학기가 되면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면서 학생들은 '새로운 신입생 환영'이라고 써 붙인다. 세련하다면 색시하면서 청순한 이미지의 여성을 의미한다. 교수에게도 '선생님은 레알 남사벽 센스의 김광장 오빠 같아요.'라고 할 정도로 은어가 난무하니 말하면 무었하랴.(이걸 번역하면, 선생님은 정말 남을 수 없는 사차원의 센스를 가진 최고의 오빠 같아요 정도가 될까.) 프랑스에 사는 회교도들이 음절의 앞뒤를 뒤집어 말하는 것을 베를랑(verlan)이라고 한다. 카페(cafe)를 페카(fecca)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음절을 뒤집는 베를랑을 넘어서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의미를 뒤집는대까지 와 있는 것이다. 이리다가 어느 날 우리 사회에서 '개놈'이라고 하면 정말 바람직하고 모범이 되는 남성을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니 걱정이요. 그래서 어느 날 여대수가 결혼을 앞둔 딸과 함께 사위감을 놓고 이런 말을 나누게 된다. 상상하자면, 등골이 오싹해질 수밖에 없다. '자 남자에 정말 사위 삼고 싶은 개자식 이로우냐.' <작가·세종대 국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로 칼럼



김원영

1945년 4월 13일 미국 23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사망했다. 전후 세계문제를 논의한 얄타회담이 열린 지 두 달 후였다. 얄타회담의 남은 두 주역 중 스탈린은 1953년 3월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처칠은 90살까지 장수했으나 3번째 찾아온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물론 두 사람 다 고혈압이 있었다. 루즈벨트의 주치의는 사망원인이 갑작스런 뇌출혈이었고, 대통령은 평소 건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혈압은 10년 가까이 높았으며 1944년 3월에는 울혈성심부전, 신장기능저하 등의 합병증이 나타나고 사망할 날 측정된 그의 혈압은 300/190

mmHg였다. 혈압은 혈액이 동맥혈관에 가하는 힘을 말하며, 심장이 수축해 혈액을 내보낼 때(수축기 혈압)와 심장이 늘어나 혈액을 받아들일 때(이완기 혈압)를 구분해 함께 나타낸다. 혈압의 단위는 혈압계 수은(원소기호 Hg)기둥의 높이를 mm단위로 표시한 것을 쓴다. 수축기 혈압이 140mmHg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한다. 고혈압이 있으면 뇌혈관질환, 심장병, 신부전 등의 질환이 배 이상 잘 생긴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두 번째가 뇌혈관질환, 세 번째가 심장병인 것을 생각하면 고혈압은 사망원인 첫 번째인 암과 같이 중대한 질환으로 꼭 치료해야 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망 원인인 뇌출혈은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아 생겼을 수 있어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정치적 흑막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1945년까지도 고혈압은 정상적인 생리작용으로 생각해 치료하지 않았다.

고혈압, 짜게 먹지 않기

2차 세계대전 후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이 적은 항고혈압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혈압이 아주 높으면 두통, 어지러움, 피곤함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들은 증상이 없다. 지금까지 아프거나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만 병원을 찾던 사람들이 고혈압의 재앙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고지질혈증이나 골다공증의 치료에서도 볼 수 있다. 또 고혈압 치료의 패러다임은 의료가 치료에서 예방으로 영역을 넓히도록 했다. 다양한 조기 검진 프로그램의 촉진제가 된다. 우리나라 성인 고혈압 유병률은 33%, 60세 이상에서는 50%이다. 내과 개원의인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환자도 고혈압 환자다. 고혈압은 약물요법과 더불어 식이·운동요법이 중요하다.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 환자 와 의사의 신뢰와 협조가 중요하다. 아니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중요하고 의사는

조언자일 수 있다. 환자들이 진찰실을 나가려다 뒤돌아서 무슨 음식을 가려야 하느냐고 묻는다. 내 첫마디는 "짜게 드시지 마세요"다.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섭취량이 너무 많거나 배설이 잘 되지 않을 경우 혈압근과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상승의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 국민 평균 소금 섭취량은 12.7g으로 국제보건기구(WHO)의 1일 소금 권장 섭취량 5g보다 2배 이상 많다. 어떻게 하면 짜게 먹지 않을 수 있을까. 먼저 조리돼 나온 음식에 소금을 치지 않아야 한다. 국물 맛이 끝내줘도 국물은 3분의 1 이상 남긴다. 외식은 일주일에만 한 번 이하로 줄이고, 가공식품과 인스턴트식품도 삼간다. 양념장이나 소스를 적게 찍어 음식 고유의 맛을 즐기는 것이 좋으며, 요리할 때 소금간을 가장 나중에 하는 것도 지혜다. 식품을 살 때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토마토 케첩 30g(2큰술)에는 1g의 소금이 들어 있다. 짜지 않다고 소금 함량이 적은 것은 아니다.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는 http://www.hypertension.or.kr/ (국민고혈압상담단)이다. <우리들내과 원장>

기고



안연순

어느 시대에도 환경오염문제는 있었던 것 같다. 천년제국의 로마인들도 납중독이 확산되고, 수원지로 사용한 티베르강의 수질 오염이 심화되면서 출산율과 전파력이 떨어져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9세기에 갑자기 멸망한 마야문명도 화전농업이 큰 이유일 거라는 주장이다. 화전농업이 급격히 확대되어 숲의 증산작용이 줄어들면서 잦은 가뭄이 들고 결국 마야경제의 핵심인 농업이 파탄 나면서 급격히 몰락했다는 것이다. 두 제국의 직접적인 멸망 원인으로 환경오염을 지목하기에는 다소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는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환경오염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에서 시작된다. TV를 통해서 본 다큐멘터리 '북극곰'과 '아마존의 눈물'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주었다. 국제연합(UN)은 1972년도에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장 이상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즉,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 현 세대가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적, 후생적 배려를 강조한 것이다. 욕심을 버리고 세대가 윈-윈(WIN-WIN) 하자는 세대공영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다. 6월 5일은 UN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지금 지구는 기후변화와 사막화, 열대림 벌목 등으로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몰살을 앓고 있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지구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면서 현 세대의 개발

육심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장기적이고 균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단순히 상징적인 구호 정도에서 끝나지는 않는 것 같다. 요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화두 중 하나는 환경과 생태가 핵심 콘텐츠화 된 지역발전모델이다. 생태관광,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청정지역 등의 비전들을 보노라면 자연과 생태를 강력한 자원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대세가 된 듯하다. 예전, 환경과 자연을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 제고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에 비해, 요즘은 자연과 생태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지자체들도 많다. 환경 나비축제, 순천만 갈대숲 생태관광은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과 생태도 돈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자연에서 여가를 즐기려는 문화가 확산된 것도 원인일 것이

다. 자연과 생태의 가치가 정당한 평가를 받고 지역민에게도 사랑받는 '예코 르네상스'가 온 것만은 확실하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정부는 자연의 중요성과 함께, 숲의 아름다움과 체계적 관리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정부 메시지로 선포하였다. 자연과 인간을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고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자연을 아끼고, 배려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환경과 생태에 대한 인식은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도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린스타트(Green Start), 미퍼스트(ME FIRST)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보전은 실천이다. 우리 모두가 친환경적으로 행동하고, 환경과 생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세계가 반한 한우 불고기, 대표상품으로 육성해야

소고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FTA로 미국산 소고기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면서 힘들어하던 한우 농가가 구제역 파동을 겪으면서 소고기 가격 폭락으로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제는 위기를 기회 삼아 한우 소비 유통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한우를 이용한 불고기 특화 육성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한우 불고기 맛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외국인들에게 가장 맛있는 한국음식을 물어보면 심중팔구는 불고기라 답할 정도다. 불고기가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우리 한우의 품질도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불고기는 고구려 시대 고기구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후 품질 좋은 한우를 주재료

로 마늘, 참, 파, 참깨, 생강, 배 등 각종 양념들이 환상적인 조합으로 어우러지면서 최고의 고기 요리로 발전하게 됐다. 음식도 대표적인 국가 경쟁 상품 중 하나이다. 일식과 중식은 세계적으로 유행세를 떨치고 있는데 한우 불고기가 그에 미치지 못할 리 없다. 이제 불고기를 대표적인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 종류별로 집중 육성하고 특화해 보자. 한우만이 맛을 낼 수 있는 불고기와 거기에서 파생하는 요리를 만들고 선전해 한우를 살리고 농촌을 돕자. <강성구·광주시 동구 운영팀>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광주 2순환도로 운영·관리 이대론 안된다

광주 제2순환도로에 대한 시 재정부담이 여전히 달진 격이다. 광주시가 2순환도로 재정보전금으로 매년 200억 원이 넘는 현세를 투입하는 것도 모자라도로 관리·운영에 따른 소음방지시설까지 거액을 들여 설치해 주기로 하면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시는 2순환도로 주변의 진열 및 풍압지구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 손해배상까지 겹쳐 조만간 5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 일대에 타널방식의 시설공사를 발주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부담을 광주시가 모두 떠안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순환도로 관리·운영 주체가 광주시도 돼 있을 뿐 실질적인 운영·관리는 1구간 및 3-1구간의 민간 투자업체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가 아닌가. 지난 2001년부터 구간 별로 통행요금과 재정보전금까지 지원 받아 일정 부분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맥쿼리사 대신

광주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맥쿼리사가 시설 투자를 한 만큼 소음방지시설도 투자회사의 몫이라는 얘기다. 광주시가 지난해 222억 원 등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재정보전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음방지시설까지 떠맡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더구나 시가 2006년부터 5년째 맥쿼리사 측과 '최소수익보장률' 인하를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광주시는 금년 초 수익보장률을 인하시키지 않을 경우 사업자 취소 및 민자도로 매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아직까지 무소식이다. 시는 맥쿼리사와 최소수익률 인하를 포함한 소음방지시설 등에 관한 협상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결론을 내야 한다. 언제까지 시민의 현세를 밀착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남비할 수는 없지 않나.

광주 총인 시설 관련 '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광주시의 총인 시설(하수 오염물질 제거시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각종 의혹과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시가 시공사 선정 심의에 참여했던 공무원들 갑작스럽게 해촉하면서 의문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공사비가 1000억 원에 가까운 초대형 공사로 지난해부터 국내 건설업계의 조미의 관심사였던 광주시 총인 시설은 지난 4월 시공사로 대립산업 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이를 둘러싸고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을 놓고 지역 정치권과 업계 일각에서 특정인사의 영향력 행사 및 이들 간의 대리전 등 미확인 소문이 떠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시가 1일 시공사 선정 심의위원 중 공무원 5명을 포함해 설계심사 부위원 7명을 전격적으로 해촉했다. 이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기쁨을 부은 격으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해촉 이유가 석연치 않은데다 특정업체에 좋은 점수를

준 심의위원들이 대상이어서 '표적 해촉'이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광주시는 총인 시설 관련 각종 의혹을 낱알이 규명해야 한다. 우선 최근 나돌고 있는 소문에 대한 진상부터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강운대 시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 시는 총인 시설 잡음을 예사롭게 보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시중에는 '시청 4인방'이니 하며 몇몇 특정인사의 전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파문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특히 강 시장은 총인 시설과 관련해 한 점 의혹 없이 실상을 파악해 공개하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즉각 시정함과 동시에 관련자는 엄정하게 처벌조치해야 할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無等鼓

강형철 감독이 최근에 '찌니'로 대박을 냈다. 찌니는 중년의 나이에 우연히 만나게 된 친구를 통해 여고시절 7공주로 지냈던 추억을 찾아가는 영화다. 흥행 요소는 거의 없었지만 소위 '7080'으로 인해 흥행에 성공했다. 이러한 복고 분위기는 영화 뿐 아니라 TV에서도 많이 등장한다. 오디션 프로그램 인기와 함께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변진섭의 '내게로 또다시', 윤복희의 '여러분',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 같은 노래들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과거 음악의 재발견은 요즘 예능의 트렌드가 됐다. 또 곧 발흥될 '발후의 명곡' 시즌 2도 이러한 옛 가수들의 노래를 현재 아이돌들이 경연식으로 부른다고 한다. KBS에서 준비 중인 중년판 '1박 2일'인 '70-80년대를 부탁해'도 역시 복고다. 70~80년대 가요계를 이끌었던 세시봉 멤버인 조용남, 송창식, 윤영주, 김세환 등이 전국콘서트를 하고, 교포를 위한 전미투어까지 준비 중이다. '나는 가

수다'에서 이른바 한 물건 가수 임재범이 각종 음원차트를 올 길 하면서 '왕의 귀환'으로 추앙받고 있다. 왜 이처럼 7080을 기념한 복고 트렌드가 주목받는 걸까. 새로운 문화 구매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년세대(7080)들의 적극적 참여 덕분이다. 이들은 IMF를 겪으며 문화 소비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자신들의 힘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밴드, 인디문화부터 팬덤에 이르기까지 젊은 층의 문화에 동참을 꺼리지 않고, 각종 아웃도어 활동을 통해 여가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복고 콘텐츠의 특징은 세대 통괄적인 특성을 갖는다. 젊은 세대부터 나이든 세대까지 나란히 앉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지금 시점에서 재해석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향유하는 세대가 더욱 넓고 있다. 7080세대의 복고 콘텐츠는 바람직한 등장이다. /최재호 정경부 차장ion@kwangju.co.kr

복고 트렌드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